

파업 투쟁 딱 백일째 되던날 일간지를 통해 특별기동반 편성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그 요지인 즉 전국의 장기 파업사업장 조기해결을 위한 노동부 본부차원의 특수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홍양노조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단체협약 조합 중 ▲징계위원회 공동구성 ▲인원 감·충원에 대한 노조측과의 합의 ▲무노동 무임금 철폐를 쟁점사안으로 두고 일년 2개월동안이나 투쟁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과정속에서 작년 11월에는 조합원 70여명을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빨갱이라는 악선전 속에 2백여명의 구사대로부터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하는 등 갖은 탄압을 받아왔다. 드디어 올 5월 22일 노조탄압에 맞서 입투와 결합해 전면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 1백여일간 투쟁해 오면서 7명의 간부가 구속되고 20여명이 고소·고발됐다. 세차례의 공권력 투입을 맞으면서 단한번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대안을 유지하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홍양투쟁의 의미는 1백

여일을 가열차게 싸워왔다는 점만은 아니다. 이러한 싸움과정을 통해 부천지역 내에서 상공회의소를 위시한 자본가들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부노협과의 전면대결을 끌어냈다는 데 있다.

당국이 노동부 특별기동반을 편성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몇개 사업장을 지목, 조기해



하반기 노동자투쟁의 불씨가 되련다

결에 나서겠다고 큰소리쳤다. 아울러 그들은 이와 병행해 '배후세력'을 운운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이 이렇듯 명확하고 홍양투쟁을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그런 놈들"로 치부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그들이 지목한 사업장은 대체로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힘있는 사업장이다. 우리는 그들이 특별기동반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투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적어도 홍양에 있어서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첫째는 엄

히 깰 수 없다고 판단한 자본가의 퇴각이요, 홍양 조합원들의 승리다.

둘째로 그들이 진정 두려운 것은 이전의 투쟁과정이 아니라 이후 투쟁의 방향일 것이다.

현재 홍양은 부노협 하반기 투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저들의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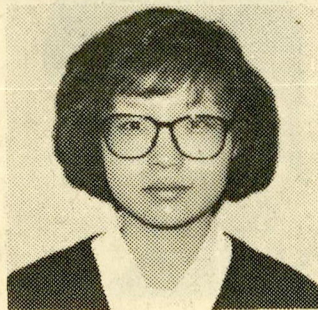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가?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에 타격을 가하자. 홍양은 단사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연대투쟁을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들은 이번 투쟁을 통해서 현 투쟁의 성격은 조직적으로 정비된 총자본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노동자는 연대해서 투쟁해야만 진정으로 승리한다는 것, 또한 각자가 그런 연대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비록 현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 타 조합의 노동자들이 위축되어 있다해도 그것을 극복시키는 것이 선봉에선 파업사업장의 우리자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직내 선전팀을 대폭강화하고 전 조합원을 선동요원으로 훈련시켜 지역 아니 전국을 휩쓸고 침체된 노동자들을 들쭉시키고 다니는 말썽꾼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우리 홍양노조 개별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다.

《주) 홍양 노동조합 위원장》



박 미 경

중한 현 정세를 등에 업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와 달리 도저

체적인 탄압에 한 방 먹고 여름 동안 힘을 축적한 우리노동자 부대는 새로운 힘과 투지로 하반기 단체협약 투쟁, 노동법개정 투쟁,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반기 투쟁전선에서 현 파업사업장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불씨가.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활활타오를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현재 장기파업 사업장의 투쟁을 조기해결하고자 하는 원인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 파업사업장들은